

변부에 짜 넣은 브랜드명

슈트의 바지가랑이, 주머니 입구 또는 재킷의 안쪽 등을 잘 살펴보면, "100% CASHIMERE WOOL - 000 Textile Co., Ltd" 등과 같이 원단 메이커의 명칭이나 상표를 변부에 짜 넣어 변이 잘 보이도록 정리되어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좋은 직물 옷감을 사용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는 외관상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소맷부리 근처에 재봉되어 부착된 상표도 있는데, 이러한 것은 어패럴 메이커의 브랜드명이다.

한편, 이런 브랜드명과는 달리 변사장치가 붙어있는 직기의 북집 속에 위사를 넣어 그 북집이 상하로 개구된 경사의 사이를 지나게 하여 위사를 넣는 방식이 있다. 위입된 위사는 경사가 개구된 곳에서 확실하게 체결시킨다. 직쪽에 다다른 북집은 유턴하여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온다. 이것은 북직기라든가 셔틀직기라고 하는 것으로, 옛날부터 짜오는 직기의 방법이다. 모직물의 제직에 사용되어 온 것은 셔틀직기(shuttle loom)이다. 셔틀직기로 제직할 때는 소음이 많이 나고 제직속도도 느리다. 따라서 오늘날 생산효율을 올려 비용절감을 도모하려는 상황하에서는 부적합하다. 요즘은 이러한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북직기가 없는 셔틀리스 직기(shuttleless loom)가 사용되고 있는데, 고속이고 소음도 적다. 이를 혁신직기라고도 하며 워터제트 직기(water

jet loom), 레피어 직기(rapier loom), 프로젝타일 직기(projectile loom) 등이 그런 것이다.

* 슈트(suit) : 상하의를 같은 천으로 만든 한 벌의 양복으로서 일반적으로 남자의 경우는 상의(코트 또는 재킷) · 조끼 · 바지의 3가지로 조합된 신사복이고, 여자의 경우는 재킷 · 스커트 · 블라우스의 한 벌을 말한다. 슈트는 원래 남자의 양복으로 등장하여 그 기능성이 좋아 급속히 일반화된 후, 여자의 운동복으로 적용되다가 테일러 슈트(tailored suit)를 시초로 오늘날의 정장용 복장이 되었다. 슈트라는 용어가 최초로 등장한 때는 17세기로, 같은 천으로 만든 한 벌의 양복을 이렇게 불렀다. 18세기 남자복이 무릎 길이의 코트형으로 바뀌면서 19세기 중반에는 프록(frock) 또는 연미복이 나오고, 이에 따른 여성용 슈트가 선보이게 되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영국 여성의 운동복이 선구적인 구실을 하였으며, 프랑스에 도입되면서 일상복으로 보급되어 19세기 후반에는 상류층 여성들의 컨트리 웨어(country wear)는 거의 테일러 메이드(tailor-made)이었다. 이것은 서서히 진행되어온 여성해방과 남녀평등의 의식을 의생활 상에 반영시킨 것이었고, 19세기 말기에는 사실상 일반화되어 테일러 슈트가 여성복을 전문으로 하는 테일러에 의해 만들어졌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슈트의 합리성과 기능성이 높이 평가되어 1930년대 후에는 여자 복장으로 완전히 정착하게 되었다.

종류로는 남자복이 라운지 슈트(lounge suit), 색 슈트(sack suit), 야회용 슈트 등이 있고, 여자용은 형식이 다양하게 분화하여 스포티한 것, 캐주얼한 것, 드레시한 것, 포멀한 것 등으로 범위가 넓다. 용도상으로 타운 슈트, 디너 슈트, 스웜(swim) 슈트, 형식상으로 니트(knitted) 슈트, 팬탈롱(pantaloon) 슈트, 스мок(smock) 슈트 등이 있다. 형태는 대개 신사복 상의와 같은 형의 상의에 스커트를 조합하며, 칼라는 테일러 칼라로 하고, 싱글 또는 더블의 단추를 달며 플랩 포켓(flap pocket)이 달린다. 또, 상의와 겹들여 블라우스 · 질레(gilet) · 베스트 등을 입는다. 재료는 모직의 플라노(flano) · 트위드(tweed) · 도스킨(doeskin) · 개버딘(gabardine) · 서지(serge)등의 단단한 느낌이 나는 모직 또는 합성 혼방직이 쓰이고, 에프터눈 슈트(afternoon suit)는 부드러운 감을 주는 직물로서 두꺼운 견직 캐시미어, 도스킨 등으로 만든다.

* 스мок(smock) : 의복 위에 걸쳐 덧입는 기름하고 품이 넉넉한 상의를 말하고 사무복이나 작업복으로서 의복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덧입는다. 또한 이 옷의 풍성한 주름은 본래 자수로 처리되었던 것으로, 이 장식적 주름을 잡는 기법도 스모킹 또는 스묵이라 한다. 어원은 머리부터 뒤집어 써서 입는 의복을 의미하는 스묵(smoc)이었으나 시대에 따라 4가지 뜻으로 변천하였다.

첫째는 13~18세기까지 피부에 직접 닿게 속에 입었던 여성용 내의인데, 18세기말에는 시프트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19세기 이후는 슈미즈

(chemise)라 불렀다. 둘째는 식민지 시대에 미국에서 농장노동자나 일반노동자가 입었던 성글게 짠 두툼한 마직의 셔츠를 말한다. 셋째는 18세기 이후 유럽 각지에서 농장노동자나 양치기가 입었던 작업복인 스모크 프록(smock frock)의 약어이다. 보온과 더러움을 막기 위하여 평상복 위에 덧입었는데, 무릎 정도의 길이에 소매가 길고, 가슴부분은 스모킹 장식으로 되어 있었다. 재료는 홈스펀이나 두꺼운 면직을 사용하였다. 넷째는 오늘날의 풍성하게 만든 상의를 말하며, 특히 화가 · 엔지니어 · 여성 · 어린이용의 작업복을 가리킨다.